| Scene Num | Location | Character | Sound | Item |
| --- | --- | --- | --- | --- |
| #1-1 |  | 와쳐, 레이나, 클레아, 루나 | 웅성 거리는 소리, 탕하는 총소리 | 멘 네페르 전경,  레이나, 클레아, 루나 |
| Story | (1-1 스테이지 시작전)  (검은배경)  ~배틀 위치스, 출격 합니다~  옛 도시들은 공중도시 아래, 땅위에 지어졌다.  계속된 개발은 인류를 더이상 땅위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하였고, 인류는 높은 탑과 공중 도시를 만들어 하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파워드 슈트와 이카로스 기어, 여러 비행 장비들을 통해 인류는 하늘에서의 삶에 적응 하고 정복하는 듯 싶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웅성거리는 소리)  ??? : 인류는 실패한 종입니다.  ??? :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하늘로 도망친 ‘패배자’일 뿐, 창조주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 : 바로 인류의 본능은 지배받는 것 입니다.  ??? : 저는 ‘와쳐’.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자.  와쳐 : 저와 하나가 되어 우매한 인류를 지배하고, 자유라는 유혹에서 그들의 본성이 복종이라는 것을 눈 띄워 줍시다.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준 로봇들은 자신을 ‘와쳐’라 칭하는 로봇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을 앗아갔다.  각국의 군대, 연합군은 괴멸했고 레지스탕스들이 저항을 계속 이어갔다.  (밝아지며 공중도시 ‘멘 네페르’의 전경 등장)  공중도시 ‘멘 네페르’.  하늘 위로 쭉 뻗어 있는 건축물 위 한손에 빗자루 모양의 ‘이카로스 기어’를 들고 있는 소녀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레이나 : 루나?  레이나 : 루나, 지금 어디야?  루나 : 새로운 친구 사귀는 중 입니다.  레이나의 눈에 팔다리가 기계로 된 소녀와 그 뒤로 많은 로봇들이 쫓아오는 장면이 보인다.  루나 : 다들 레이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레이나 : 알겠어. 클레아 ‘체인 스위치’는 준비 됬지?  레이나는 고개를 돌려 검은 제복과 큰 총을 든 소녀를 바라봤다.  클레아 : 응. 시스템 올 그린  클레아는 레이나를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다.  레이나는 건축물 위에서 뛰어 내렸고 푸른 불빛을 내는 ‘이카로스 기어’에 올라타 루나를 향해 날아갔다.  레이나 : 루나, 친구들이 많이 거친데?  루나 : 분리수거 해야될 것 같습니다.  레이나 : 좋아, 누가 더 많이 깡통 수거하는지 내기할래?  클레아 : 늘 말하지만 이건 경쟁도 경기도 아니니까, 조심해.  (탕하는 총소리)  레이나와 루나의 뒤쪽으로 달라 붙은 로봇은 강한 레이저 탄환에 표면이 녹아 일그러지다 폭발했다.  레이나 : 클레아가 뒤를 봐주니까 안심이야.  루나 : 와이- 클레아- 최고오-  클레아 : 좀 짜증나는데?  레이나 : 히헤헤 자자 집중하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루나 : 바보 웃음.  레이나 : 너 일로와! | | | |

| Scene Num | Location | Character | Sound | Item |
| --- | --- | --- | --- | --- |
| #1-2 |  | 레이나, 클레아, 루나, 해설자, 기자, 라디오 | 환호 소리, 치직 거리는 소리, 삑삑하는 소리 | 멘 네페르 전경, 경기장,  레이나, 클레아, 루나, 라디오 |
| Story | (1~2 스테이지 시작전)  (검은배경)  ~익스트림 제트~  (환호 소리)  (밝아지며 경기장 배경)  해설자 : 아! 레이나! 라이벌인 ‘레바테인’의 요르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해설자 : 월드 EXJ 챔피언십의 우승 팀은 ‘배틀 위치스’ 입니다!  (환호소리)  기자 : 축하드립니다. 레이나 선수.  기자 : 강팀인 ‘레바테인’를 꺾고 우승 팀이 되었는데, 팀 리더로써 소감이 궁금합니다.  레이나 : 팀원들과 호흡이 잘 맞았던 것도 있지만 운도 따라 줬던 것..  (폭발음)  기자 : 뭐야! 어떻게 된… 꺄아아악  (어두워졌다 밝아지며 공중도시 ‘멘 네페르’의 전경 등장)  현재.  공중도시 ‘멘 네페르’의 한 구석.  레이나 : ‘커맨드AI’는 추적되고 있어?  클레아 : 지금까지 모은 로봇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추적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어.  클레아 : 아직 엘리트 로봇에게서 얻은 정보가 부족해.  루나 :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루나 : 우리 ‘배틀 위치스’는 역시 ‘익스트림 제트’의 신입니다.  클레아 : 루나.. 이건 ‘익스트림 제트’랑 다르다고 몇번을 말해.. 안전 또 안전!  레이나 : 클레아 말이 맞아 계속해서 엘리트 로봇들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어.  레이나 : 계속 조심하고 패턴을 익혀야해.  레이나는 벽에 붙여진 ‘배틀 위치스’의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배틀 위치스’  인기 스포츠 였던 ‘익스트림 제트’의 팀이 였던 그들은 얼마전 레지스탕스가 발표한 정보를 듣고 다시 한번 하늘로 날아 올랐다.  (라디오 이미지)  (치직 거리는 노이즈 소리)  라디오 : 다른 레지스탕스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라디오 : 첫째, 로봇은 인간보다 무거워 우리 인간들 만큼 정교한 비행이 어렵습니다.  라디오 : 둘째, 생산시설은 ‘커맨드AI’가 지키고 있고 그걸 파괴하면 생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라디오 : 셋째, 일부 ‘엘리트 로봇’을 제외하면 공격이 단조롭습니다.  라디오 : 넷째,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커맨드AI’에는 ‘와쳐’의 위치가 담긴 네트워크 코드가 있습니다.  라디오 : 어쩌면 네트워크를 장악한 ‘와쳐’를 파괴한다면 모든 로봇들을 정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 :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낸 정보입니다. 부디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멘 네페르’의 전경)  루나 : 이제 이것도 질립니다.  레이나 : 야.. 그래도 에너지 바라도 있는게 어디야.  레이나 : 그것도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루나 :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클레아 : 나는 싱싱한 과일이 먹고 싶어.  레이나 : 난.. 스파게티..  레이나 : 그만! 그만! 배만 더 고프잖아!  (삑삑 하는 소리)  클레아 : 적기체 확인.  레이나 : 쟤들은 쉬지도 않는구나.  루나 : 저건 부럽습니다.  레이나 : 후.. 자 다시 가볼까? | | | |

| Scene Num | Location | Character | Sound | Item |
| --- | --- | --- | --- | --- |
| #1-3 |  | 레이나, 클레아, 루나, 헬, 펜리르, 로봇 |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삐삐삐 하는 효과음 | 멘 네페르의 전경, 레이나, 클레아, 루나, 펜리르, 헬 |
| Story | (1~3 스테이지 클리어 후)  (검은 배경)  ~레바테인~  (밝아지며 ‘멘 네페르’의 전경)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클레아 : 적 기체 전멸.  클레아 : 더 확인 되는 적은 없는 것 같아.  레이나 :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루나 : 클레아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  레이나 : 어때? 데이터는 충분해?  클레아 : 응. 이정도면 ‘커맨드AI’의 위치를 특정 할 수 있겠어!  클레아 : 다들 수고했어.  ??? : 도와주세요!  레이나 : 잠시만! 어디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레이나 : 잠시만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레이나는 ‘이카로스 기어’를 잠시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로봇 : 도와주세요!  레이나 : 이게 무슨…  로봇 : 자폭 시스템 활성화.  (삐삐삐 하는 효과음)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클레아 : 레이나!  레이나 : ‘충격 때문에 제피로스 브룸이…’  레이나 : ‘빨리.. 중심을 잡아야..’  레이나의 ‘이카로스 기어’는 푸른 빛이 아닌 매캐한 회색 연기와 함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레이나 : ‘제발.. 좀..’  레이나는 필사적으로 다시 ‘이카로스 기어’에 올라타려고 노력했다.  루나 : 레이나!  클레아 : 루나! 후방에 적 기체 다수 확인..  클레아 : 루나.. 그대로 레이나를 구해! 지금 바로 출격할게.  루나 : 조금만 더…  클레아 : 제발.. 하느님..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레이나의 손을 겨우 잡은 루나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루나와 레이나의 위로 태양 빛에 흐릿하지만 2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호버 보드 모양의 ‘이카로스 기어’에 올라탄 녹색머리의 소녀, 그리고 묵직해 보이는 ‘파워드 슈트’를 입은 헝클어진 머리의 소녀가 보였다.  ??? : 괜찮아?  루나 : 당신들은..  ??? : 그래 쨔식들아! ‘배틀 위치스’ 너희들의 라이벌이..  루나 : 누구였죠?  ??? : 뭐뭣!  ??? : 젠장! ‘레바테인’라고!  루나 : 아 그랬죠?  레이나 : ‘레바테인’의 헬.. 그리고… 누구…  펜리르 : ‘레바테인’의 화력 담당 펜리르 님이라고!!  루나와 레이나는 서로 바라보다 다시 펜리르를 바라보았다.  레이나 : 아.. 그런 사람 있었지 맞아.. 음음  루나 : 아 기억 납니다.. 그.. 음..  펜리르 : 이 자식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둘껄.  헬 : 우리 한가롭게 티타임 가질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헬이 웃으며 가리킨 곳을 보자 폭발로 만들어진 불과 연기속에서 로봇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클레아 : 제가 도착하자 마자 레이나의 ‘이카루스 기어’를 수리할께요.  클레아 : 그때까지 부탁드릴께요.  펜리르 : 그래. 근데 니가 와서 빗자루 수리 하기 전에 우리가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 | | |

| Scene Num | Location | Character | Sound | Item |
| --- | --- | --- | --- | --- |
| #1-4 |  | 레이나, 클레아, 루나, 헬, 펜리르, 요르 |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 멘 네페르의 전경, 무너진 경기장, 레이나, 클레아, 루나, 펜리르, 헬 |
| Story | (1~4 스테이지 클리어 후)  (검은 배경)  ~요르~  (밝아지며 ‘멘 네페르’ 전경)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하늘위로 거대한 불기둥이 생겨났고 로봇들의 잔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레이나 : 역시… ‘레바테인’의 화력 담당..  루나 : 역시.. 펜..기루…  펜리르 : 펜리르라고!!  루나 : 펜리르라고 했습니다.  펜리르 : 아니거든!!  헬 : 잠깐.. 얘들 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아?  클레아 : 도망치는 건가..?  레이나 : 아냐.. 지금까지 몰려와서 공격만 했지 도망 가는건 본적 없잖아.  레이나 : 우아악 모르겠어! 대체 공격만 하던 저 녀석들이 왜..  루나 : 새로운 패턴이 아닐까요?  헬 : 아냐.. 이건 도망가는게 아니고..  펜리르 :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 부숴버리자고!!  펜리르의 ‘파워드 슈트’는 큰 소리와 함께 로봇들을 쫒아갔다.  클레아 : 펜리르! 잠시만요!!  레이나 : 하.. 제길 일단 따라가자!  루나 : 원래 바보는 용감합니다.  레이나 : 그렇다기엔.. 단순한 용감한게 아닌 것 같은데..  레이나 : 분명 다른게 있지.. 헬?  레이나 : 용감하다기 보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마치 화가.. 난 것 같다고 해야 할까..?  헬 : …  클레아 : 헬? 왜 그러세요?  헬 : 저녀석.. 펜리르는 로봇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헬 : 그날.. 너희가 우승한 날.. 다른 이유로 나와 펜리르에겐 최악의 날이 되었거든.  (과거회상 - 무너진 경기장(위아래로 어두운 프레임))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헬 : 요르? 펜리르? 다들 괜찮아?  펜리르 : 이게 무슨 난리야! 죽는줄 알았잖아!  요르 : 나가서 상황을 한번 보자고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핀 요르에 눈에 난장판이 된 경기장과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대는 로봇들이 보였다.  요르는 다시 문을 조심히 닫고 심호흡 했다.  요르 : 후..  헬 : 괜찮아? 무슨일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요르 : 다들 장비 챙겨.  펜리르 : 제대로 설명을..  요르 :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후..  요르 : 확실한건 우린 이문을 나서면 스포츠가 아니라 진짜 전투를 해야 할꺼야.  요르의 얼굴을 본 펜리르와 헬은 더이상 아무말 하지 못했다. | | | |

| Scene Num | Location | Character | Sound | Item |
| --- | --- | --- | --- | --- |
| #1-5 |  | 레이나, 클레아, 루나, 헬, 펜리르, 요르, ??? |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삐빅 거리는 효과음, 웅웅 거리는 소리, 삐- 하는 소리 | 멘 네페르의 전경, 무너진 경기장, 레이나, 클레아, 루나, 펜리르, 헬 |
| Story | (1~5 스테이지 시작 전)  (검은 배경)  ~미확인 비행체~  (과거회상 무너진 경기장)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펜리르 : 젠장 이녀석들 끝도 없이 몰려와…!  요르 : 헬! 탈출구는?  헬 : 로비가 완전히 박살 났어…  요르 : 그럼.. ‘배틀 위치스’ 녀석들은..  헬 : 잘 모르겠어.. 너무 난장판이라서 확인해 볼수는 없겠어…  요르 : 제길.. 최악이네.  펜리르 : 잠깐 시간 좀 벌어 줘! 내가 벽을 날려버릴테니까!  요르 : 할 수 있겠어?  펜리르 : ‘레바테인’의 화력 담당..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펜리르는 몸을 돌려 벽쪽으로 달려고 손을 댔다.  곧 펜리르의 ‘파워드 슈트’의 손 부분이 점점 달아올랐다.  헬 : 펜리르! 아직 멀었어?  펜리르 : 보채지마 짜샤! 조금만 더..!  땀에 젖은 펜리르의 정리되지 앞머리 사이로 두 눈이 반짝였다.  펜리르 : 흐랴아아아아!!  (쾅 하고 터지는 효과음)  펜리르 : 빨리와! 가자!  헬 : 요르! 빨리!  요르는 손을 뻗어 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요르의 뒤로 수많은 로봇들이 그녀를 끌어 당겼다.  요르 : 가..! 빨리!.. 따라갈게!  (과거회상 끝)  (다시 ‘멘 네페르’ 전경)  레이나 : 그..그런…  클레아 : 잠깐, 전방에 미확인 비행체 확인.  클레아 : 로봇들이.. 되돌아 가던게.. 이 비행체를 향한거 같은데.  클레아 : 크기가… 이건.. 그냥 로봇이 아냐 설마..  펜리르 : 얼마나 크건 상관없어! 그냥 부숴버려!  레이나 : 클레아 지금 바로 추적 알고리즘 결과랑 비행체의 좌표를 비교해줘.  클레아 : 알겠어.  (삐빅 거리는 효과음)  클레아 : 좌표…일치…  클레아 : 미확인 비행체.. 빠른 속도로 접근 중?  레이나 : 루나! 펜리르! 당장 멈춰  (웅웅 거리는 소리)  (삐- 하는 소리)  ??? : 계속 방해가 되는 군요.  레이나 : 설마…  레이나의 눈 앞에 거대한 비행체가 보였다.  멀리 있어 크기를 알기 힘들던 그 물체는 빠른 속도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헬 : 젠장! 펜리르!! 돌아와!!  클레아 : 아직 거리가 좀 있어. 도망치려면.. 지금 뿐이야.  루나 : 우린 가능 하겠지만, 펜…은 도망치기엔 무리입니다.  레이나 : 덩치는 큰데.. 더럽게 빠르네..  레이나 : ‘배틀 위치스’가 빚을 지고는 못살지.  레이나 : 이번엔 우리가 저녀석을 구하자! | | | |